

김영록, 연일 경제·복지 공약...지지세 확산 '젠걸음'

광주 5개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임신가정 건강관리사 파견제'도 확대
500조 투자유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2035년까지 1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 5개 자치구까지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연일 경제·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15일 "전남에서 폭발적인 기를 얻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까지 전면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광양·여수 등 8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100만원대(2주)의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이 가능하다.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 50만~80만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시설(300만~500만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면, 서비스 질은 높아 일부에서는 주소지를 이전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7천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봤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에서도 한 값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

고 있다"며 "광주 자치구 별로 한 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 닥터 앰블런스'를 특별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광주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전남 외곽지역 공공산

후조리원까지 원격진료 및 정기순회 진료를 지원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체계를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임신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 지

원금(바우처)을 지급하고, 전남도 사업인 '임신가정 건강관리사 파견제'도 광주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호 경제부흥 공약인 50

(조원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내놓았다.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3각 축으로 연결해 반도체 설계·범용 메모리 생산·고성능·고용량 첨단 반도체 양산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폴사이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잇는 3천100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AMAT,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를 유치하는 등 500조원의 투자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광주권은 반도체 설계와 옛지 반도체 거점, 서부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범용 메모리 생산 기지, 동부권은 HBM·HBF 등 첨단 반도체 양산 기지로 특화하는 등 전남광주특별시에 세계적인 '완결형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3축을 중심으로 폴사이어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되면 2035년까지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반도체 허브' 육성을 통해 인구 400만의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 기자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오늘 시의회서 출마 기자회견

김병내 남구청장이 지난 13일 6·3 지방선거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남구는 단순한 자치구를 넘어, 통합 시대의 '광역 교통 요충지'이자 '남부권 경제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통합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남구를 통합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며 "남구의 미래를 위해, 중단 없는 남구의 큰 발전을 위해 일 잘하는 김병내가 더 큰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음을 내딛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남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지구당 부활·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주목

정개특위, 정당법·'정자법' 개정안 상정
군소정당, '중대선거구·비례 확대' 요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

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2014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통합 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서동욱 순천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순천시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조보훈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을 비롯한 고문단과 도·시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순천시시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서 예비후보는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4선 도의원,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2년간 쌓아온 입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시정 혁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동욱 예비후보는 "순천 앞에 놓인 불통과 단절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이 주인되는 순천, 소통과 연대의 순천, 시민권시대의 순천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민형배,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광주 광산을)이 지난 13일 목포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주청사 위치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시정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초기에는 광주·무안·동부권 청사를 가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시민협동조합연맹
한국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텃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